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漢鎬
編輯局長 文東彪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② 編輯局三三八五 營業局三三八四
月定購讀料 壹百圓

共委前途決定?
不合意再演을 防止
마氏書翰 AP記者評

【와싱톤十五日發AP合同】今般『마-샬』美國務長官이『모로토프』蘇聯外相에 書翰을 傳達한 新態度의 意義에 關한 觀測을 AP通信員『에드와-드·E·리-미-』氏는 다음과 가치 傳하고잇다

(一) 統一朝鮮을 樹立하기爲한 美蘇共同努力(美蘇共委)을 再檢討하느냐 閉鎖시키느냐를 一週日內로(廿一日까지) 決定하라는것을 意味한다는것

(二) 朝鮮問題에 關한 美蘇協議는 現在까지 다른問題에 關하야 美蘇間의 協議를 達成치못하엿든 이와 同樣으로 挫折시킬수는 업다는것을 表示하엿다는것

(三) 他新合意到達方法으로써 朝鮮問題에 關한 四個國會議를 開催하자고 示唆한것으로 看做된다는것

(四) 最後의 手段으로써 美國은 合意到達希望을 拋棄하고 南朝鮮再建에 集中한다는것을 示唆하엿다는것

統一臨政을 早速樹立
反託陣營에 對한 見解再强調
슈中將 蘇側聲明

十四日蘇聯側首席代表『슈티코프』中將은 反託陣營의 協議에 關하야 特別聲明을 發表 反託鬪爭委員會와 이에 加盟한 政黨團體는 單純히 莫府決定과 共委事業을 反對鬪爭하기爲한 團體라는 見解를 如左히 再闡明하엿다 (寫眞은 슈中將)

聲明槪要

一九四七年七月十八日共委第四十四次會議에서 美側代表가 한 聲明書를 美側首席代表는 一九四七年八月九日 出版物에 傳達하엿다 眞狀을 正常히 反映하여 意思發表의 自由에 根據하여, 自己의 見解를 追求한目的으로 一九四七年七月十八日美側代表聲明에 對答한 一九四七年七月二十二日共委會議에서의 다음의 聲明을 쏘側代表는 보도하려고한다 『美側代表는 自己의 聲明에 反託鬪爭委員會의 活動을 擁護하엿스며 따라서 反託鬪爭委員會에 加入한 政黨및 團體들의 朝鮮에 關한『모쓰크바』決定을 反對하는 行動을 擁護하엿다

다아는바와가치『모쓰크바』決定의 目的은 朝鮮을 自主獨立國家로 復興시키며 民主主義原則에 基礎하여 發展할 條件을 樹立하며 朝鮮에서 長久한 日本統治의 惡毒한 殘滓를 迅速히 肅淸하려는것이다 이 目的을 實現하기爲하여『모쓰크바』決定은 第一急先務로 朝鮮民主臨時政府樹立을 豫見하엿다『後見』이란 言句가잇는『모쓰크바』決定 第三項에는 共委는 朝鮮民主臨時政府와 朝鮮民主諸團體를 引入參加시켜 朝鮮人民의 政治的經濟的 文化的進步를 爲하여 방조및후원함에 對한 方策을 강구하며 民主主義的自治機關의 發展과 朝鮮獨立國家樹立에 對한 方策을 講究할것을 負擔하엿다『모쓰코바』決定에 依한 後見制는 朝鮮人民에게 自己政府를 가지는것이며 民主々義政府의 樹立과 前植民地를 歷史에서 가장 短期間內에 民主々義的自立國家로 轉換할것을 보장한다 日本이 利用한 信託形式과갓튼 信託은 그런데 樹立될수 업는것이다 美側代表는 마치『모스크바』決定全體反對鬪爭에 關한 論議가 안이라『信託』이란 語句反對에 關하여 論議가잇는것처럼 表明하려고 試圖한다 이것은 넘우나 素朴한 論議이다 첫재로『모스크바』決定을 各部分으로 分裂할수 업는것이며 둘재로 周知하는바와 갓치『모스크바』決定을 反對하는者들은『모스크바』決定全部를 反對하여 鬪爭하는것을 은폐하야『모스크바』三相會議決定과 共委事業을 全的으로 支持하는 民主々義諸政黨及社會團體와의 共委는 協調를 곳 始作할것을 쏘側代表는 다시 提議한다 그런데 左右政黨及團體들이 數爻는 만흔것이다 그럼으로 共委事業파『모스크바』決定을 反對하야 鬪爭하는 少數子루빠의 黨파團體들때문에 民主々義臨時政府樹立에 對한 共委의 事業을 遲延식길 原因이 업다고 쏘側代表는 認定한다 民主主義臨時政府樹立에 關한 共委事業을 援助하는 朝鮮人民의 決斷性은 光滿하다 이는 南北朝鮮에서 共委로 보내는 數多한『멧세지』들과 共委가 中央政府組織事業을 成功시키라는 要請을 傳達하는 諸政黨團體의 代表들이 共委를 訪問하는것으로 實證되는바이다

日帝時信託과는相反異
共委協議急速續開를希望

『모스크바』決定이 豫見한 民主主義臨時政府統一政權下에서 朝鮮을 統一케하려는 朝鮮人民의 要求와 宿望을 쏘側代表는 잘알고잇다 모스크바決定과 共委事業과 聯合國을 反對하는 鬪爭의 原則을 버리려고 願하지 안는 그러한 集團때문에 共委가 朝鮮을 統一시키며 臨政을 樹立하는 事業을 遲延식힌다면 朝鮮人民은 이것을 어느때든지 容恕하지 안을것이다

『모스크바』決定과 兩國外相間의 協定을 正確히 實行하며 民主主義臨時政府를 迅速히 樹立하며 모스크바決定에 豫見한바와가치 臨政의 管轄下에 全朝鮮을 統一시키기爲하여 全力을 다할것을 쏘側代表는 美側代表에 呼訴한다

終戰二周年

그러나 終戰即後成立된『인도네시아』共和國政府는 이事實에 疑惧를 품게되여 兩方間에 容易히 妥協이 成立되지안엇스나 英國의 居中調停으로 一九四九年에 인도네시아聯邦成立을 目標로『링카르자티』協定이 成立되여 兩方의 積極的衝突은 解消될듯이 보이엇스나 最後段階에 잇서 和蘭側의 提案인 憲兵共同責任問題에 對하야『인도네시아』側이 拒否한 結果로 臨時聯邦政府組織의 새計畫은 水泡로 도라가고 다시 戰亂의 巷으로 化하엿는데 日前에 發生한 UN의 停戰命令이 어느 程度 實行되며 또는 美國이나 UN이 무슨 方法으로『인도네시아』에 平和를 恢復시킬지 이 問題는 우리亞細亞民族全部가 다 어느 程度의 關聯을 가지고잇는만치 極히 注目되는 일이다

世界安定은언제?
아직도騷亂은各地에繼續中

中國

一九二七年蔣介石氏가 反共政策을 取한 以來 一九四三年十一月 中共政府의 首府瑞金이 陷落으로 國民黨은 中國에서의 主導權을 確立하엿스나 一九三六年十二月 西安事件을 契機로 翌三七年七月의 中日戰鬪開始에 밋처 國共合作을 急速成立을 보게되고 對日抗戰期間中에잇서 共産軍即八路軍의 活動은 多大한 效果를 거두어 日本占領地帶內의 抗日工作은 거의 八路軍에 依하야 實行되고잇섯다는 點으로보아 八路軍의 功績은 적게 評價할수 업다 그러나 對日戰에 잇서서 共同步調를 取햇다고 해서 對日戰이 終了된 今日 國共兩黨의 目標가 同一할수 업슴은 한일로『마-샬』調停에 失敗는 當然한 일이라 아니할수 업다 아직도 華北五省과 滿洲內蒙等地에서 激烈한 國共戰이 展開되고잇어 其結果는 아직 明言할수 업스나 美國이 傍觀態度로 그냥 繼續하고 이을지 蘇聯은 이에 對하야 어떠한 對策을 取할지『웰』中將의 歸國報告가 重視되는바며 우리로서도 隣接地 滿洲가 戰地로 되여잇는만치 間接的關聯을 가지고잇어 滿洲主權歸屬如何는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이 不少할것이다

歐洲諸國

蘇聯의 衛星國化한『발칸』諸國의 內情도 穩파한 것은 아니요 洪國內政도 其他諸國에도 紛爭이 相當히 잇는 모양이나 如何間 此等諸國의 國家主權은 確保되여잇으나 問題되는것은 希臘이다 希臘은『유고-』『알바니아』等 三共産國家로부터 包圍되여 孤立되고잇는 形便인데 西北의 國境地帶紛亂은 希臘政府에 重大한 暗影이다 希臘政府로부터 UN에 援助를 請하고 美英兩國의 物質的後援이 잇다고하나 希臘政府가 果然 이難局을 突破할수잇을지 今後의 問題에 屬하여잇다

亞弗利加

英國軍의 埃及撤退는 聲言된지 오래지만 아직 完全實施를 보지못하고잇다『스에쓰』運河의 重大性에 비취어 英國의 態度도 無理는 아니나 世界的大勢에 逆行하여 埃及國民의 熱望에 背馳함도 賢明한 일은 아닐것이나 또 亞弗利加唯一의 大島『마다카스칼』에 叛亂이 일어나고 五十餘年만의 中國主權으로 돌아온 臺灣에서 暴動이 일어난것等은 그것이 비록 鎭定은 되엿다고하나 其原因이 무엇인가는 一考할만한 일이다 (끝)

解放二周年記念大會祝辭

十五日서울運動場에서 擧行된 解放第二周年記念式에서 披露된 各界의 祝辭의 要旨는 다음과 갓다

公約實踐을保障
「하-지」中將

戰爭은 天賦의 自由를 侵略者로부터 保護하기爲하야 싸운 聯合國々民의 힘으로 勝利를 보게된것입니다 또 聯合國은 必勝을 期하는 同時에 朝鮮을 또다시 自由로운 獨立國家로하기를 盟誓하엿스며 現在도 努力하고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達成되지못하엿다는 事實은 여러분에게는 勿論이지만 本官에게도 큰 失望입니다 本官은 個人으로 또 偉大한 나의 國家의 代表者로 朝鮮國의 熱望이 무엇인가를 잘알고잇스며 次도 極力朝鮮을 援助하야 朝鮮國民의 意思에 따라 朝鮮國民의 希望實現에 努力할것을 이자리에서 여러분에게 保障하는바입니다

愛國心發揮하라
뿌라운少將

獨立의 前途에는 아즉도 難關이 만히 노여잇다는 事實은 여러분에게 對하야는 勿論 우리들에게도 一大遺憾事입니다 現在美蘇共同委員會는 協議對象問題에 關하여 兩國代表間에 合意를 보지못하고잇다는것을 잘 알고계실것입니다 모든 朝鮮사람은 이 記念式을 愛國心과 理解의 精神을 새로히 發揮할 嚴肅한 機會로 生覺하시기를 바랍니다 ……를爲하야 모든힘을 다할것입니다

民主臨政을希願
스티코프中將

朝鮮人民이 할수잇는대로 早速히 自己의 全鮮民主主義國家를 가지며 또는 朝鮮이 가장 가까운 時期에『모스크바』決定에 約定한바와 가치 外部의 어떠한 干涉이든지 밧지안는 民主主義國家를 樹立함을 蘇側代表는 眞心으로 願하며 또는 그

選擧로臨政樹立
李承晩博士

美國이 우리解放을 爲해주기爲해서 戰爭을 한것은 아니지만 日本을 이겻기 때문에 우리가 解放된것이다 우리의 最大不幸은 美蘇兩國의 理念差異로 因한 混亂에 아무 關係도 업시 끌려드러간것이다 美蘇兩國은 各其自己들의 問題를 混沌하지말고 우리로하여금 國權을 回復토록하여야할것이다 臨政府協定은 우리와 協議해서 決定한것이 아니므로 그協定을 廢止하고 南北統一民主政府樹立을 爲해서 早速히 總選擧를 實施해서 우리政府를 樹立하게하야 美蘇兩軍은 撤退하고 三八線을 撤廢하도록 해야할것이다

國權回復急先務
徐載弼博士

解放二周年을 마지하는 오늘날 全自主獨立을 못하고잇슴은 매우遺憾되는바이다 우리는 黨派政治運動을 超越하야 먼저 國權을 回復해야할것이며 그政府가 朝鮮人民으로 組織된後에 政黨이고 政治運動을 하는것도 조흘것이다 그러나 지금 國權도 回復되지못하고 政府도 업스며 政黨이니 政黨이니 하고 또는 政權運動을 함은 조치 못하다

四個國協議必要
劉中國領事

우리나라 國民과 政府는 朝鮮은 하로밧비 獨立을 해야하고 自治를 해야하겟다는것을 恒常主張해온것이다 此際에 美蘇共委의 成功을 祝願하는바이나 여기서 잘 解決이 안되면 美蘇英中四個國의 充分한 協議가 必要할것이다

不遠强國에列伍
푸노라드佛領事

美蘇兩國은 그計畫을 完成하기爲하야 共委에 兩代表를 派遣하고 最善을 다하고잇다 머지안어 여러분의 政府가 樹立되여 世界의 列國과 어깨를 겨누고 나갈날이 머지안어 올것을 미더마지안는다

解放第2年日誌 (2)

自一九四六年八月十五日 至一九四七年八月十四日

▲四日 러-취軍政長官 法令一〇九號에 對한 道稅地方稅案發表 ▲四日 左翼三黨合同을 決議코 南朝鮮勞働黨綱領草案發表 ▲七日 人民報、現代日報、中央新聞等 三新聞停刊 ▲七日 朴憲永、李康國、李舟河氏等에 逮捕令 ▲七日 大韓獨立促成國民會全國支部代表者大會 貞洞禮拜堂에서 開催 ▲八日 美軍進駐記念日 ▲同記念日에 하-지中將特別放送 ▲九日 左右合作委員會第二次會談 德壽宮에서 開催 ▲八日 非常國民會議長 洪震氏長逝 ▲十一日 러-취長官 部處長會議席上에서 行政을 朝鮮人에게 移讓한다고 言明 ▲十二日 獨、青年團結成式擧行 ▲十二日 李承晩博士 勤農洞路上에서 被襲 ▲十五日 新進黨結黨式擧行 ▲十八日 物品稅改正法令一〇一號發表 ▲廿三日 아놀드少將歸國 ▲二十四日 鐵道從業員罷業斷行 ▲二十五日 出版勞組 鐵道罷業의 同情罷業으로 日刊新聞及出版物一齊休刊 各官廳會社工場等罷業의 突入 ▲二十六日 러-취長官 罷業從業員에 멧세-지發送 ▲二十七日 하-지中將 鐵道罷業에 對하야 特別放送 ▲三十日 새벽五時 首都廳長 張澤相氏 指揮로 罷業團千餘名檢擧

▲十月一日 서울市 特別市로 昇格 市內各洞名一齊改稱 大韓勞總系職員動員으로 鐵道一部運轉 ▲一日 大邱에서 罷業團과 警官衝突로 戒嚴令發布 被害嶺南一帶에 波及 (繼續)

서울 종노 韓書金銀房 전화③386

以北通信
創刊一週年記念 解放二周年記念號

意義깁고 約束만흔 本誌를 내여노케된것도 於焉間 한돌의 해를 보내엿습니다 其間本誌의 進路에는 暗澹한 荊棘路와 눈물겨운 受難期가 잇슨것이 한두번이아니엿고 더구나 共産黨兇彈으로 말미아마 永眠하신 同志들의 生前을 생각하면 冥福을 빌기전에 새물가치 지미처오르는 피눈물이 압흘가리웁니다 나무껍질을 깨물면서 흐터진 머리를 휩쓸면서 아올줄모르는 子息들이 그리워 보이지안흔 三八障壁 … 내어머님 내누나 내親舊ㅡ이것이 三八以北의 現狀이요 서름입니다 이쓸아린 살림사리를 거듭하여오는 以北同胞의 代辯者로서 우리는 싸우고 … 亦是 弱少民族이엿든 日帝下에서 … 또다시 새鐵鎖에 얼키여매인 우리民族의 悲運을 打開하려고『피』로서 盟誓한 同志들은 그대로 永々不歸의 客이 되고 말엇읍니다 同志들은 갓습니다! 怨恨에 사모친 가슴을 집허보면 ㅡ그리고 그들은 힘업는 朝鮮에 脈博을 안고 … 無氣力한 百姓을 맨들려고 이民衆을 … 創刊一周年을 마지하여 故同志들의 英靈에 … 讀者및 여러同志께 敬意와 感謝를 表하며 慰勞를 드리는同時 本誌를 키워주심을 衷心으로 바라마지 안는바입니다

李北生

OUR COMMUNIST BRETHREN

◇卷頭言 創刊一周年을 回顧하면서
◇社說 解放二周年을 마지하야
◎勞農共産主義의 反對理由
◎北朝鮮의 獄中記
◎蘇聯市民과 特히 婦人兒童에 對하여
◎쏘聯女子兵隊에 붓들려가 一週間 큰욕을 當한 體驗記

世上에 男子가 女子를 强姦하엿다는 말은 잇지만 女子가 男子를 强姦하엿다는 말은 고지들을수업는것이다 그러나 三八以北에서는 가끔 이런일이 일어나서 큰이야기꺼리가된다

決死的으로 獲得한 北朝鮮 人民委員會極秘書類公開

▲昨年度○○聯으로 搬出米穀數量
▲所謂現物稅(供出)로 바든米穀數量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制定한 새愛國歌
▲共委에 協議對象되려고 諮問書要請하다가 投獄
▲宣川東敎會에서 쏘聯兵이『쌘스』
▲이것이 누구의 罪인고?
▲漫談家申不出이를 以北에서도 毆打
▲强制販賣한 北朝鮮의 富籤債券
▲金鑛家崔昌學氏宅을 쏘聯司令部로
▲운라救濟品을 쏘聯이 보내준것이라고 그들은 宣傳
▲불근軍票二十餘億圓燒却
▲죽엇다고 報道된 金化堤牧師는 健在
▲海州高女事件
▲平壤쏘美共同委員會合同會議開催中 無許可市內通行者는 嚴罰의 布告令

(文藝欄)
○○李北兒께 올리는 片紙……李南桓
○○激勵文을 주신 李南培밋 여러同志에게……朴秉重
(詩) 내故鄕……
舍音金公……
刺北風……(漢詩)……李淵圭

▲特報 所謂平壤에서 死亡者八百餘名 重傷者數千名을 내엿다는 反託示威事件의 眞相發表

販賣中
總販賣元 서울市太平路一街三一 (舊京城日報社內) (定價五○圓)
以北通信 三八社

追 ◇ 新聞代金도 一躍壹百圓으로 되엿습니다 本誌는 從前價格대로 하고 內容도 더욱 充實하오니 愛讀하여 주옵소서

八·一五記念祝典

서울市行事多彩擧行

四十년간의압제에서해방된후 두번다시마지하는八、一五해방기념일 三일오일은 三천만동포의 새로운감격파 각오속에 밝엇다

이날삼복은지낫스나아직여염이찌는듯한 무더운하날아래이날을축하하고저 축하식전이열릴서울운동장으로 대오로또는개인으로 시민들은한마음한보조로향하엿다

전세계민주주의연합국이 三천만민족은물론이고 왓쇼국가를타도하고 후의승리를거둔제二회해방기념일을마지하야서울시주최八、一五기념행사축하식은 예정파갓치십五일오전열시四십五분부터 국방경비대 관공서 각정당단체회사 일반시민등십여만명의참열하에엄숙성대히열리엿다

식장에는하ㅣ지중장을비롯하야 러ㅣ취 부라운양소장급 일전이천항에입항한 미국극동함대사령판 쭈레소ㅣ대장소련측으로는 스티코프중장 바라사노프장군 중국대표유어만(劉馭萬)총영사불국 프나파ㅣ드총영사영국 킬못ㅣ드총영사와리승만박사 김구씨 안재홍민정장관등내외귀빈다수가참석리에소선규(蘇宣奎)씨의사회로기념식의막은열리엿다 개회와동시 조선경비대군악대의주악파 국기게양전원의애국가합창이잇슨다음 주최자측을대표한서울시장김형민(金炯敏)씨의개회사가잇고이어하ㅣ지중장을위시하야 무쪠소ㅣ미국 극동함대사령판「러ㅣ취」군정장관 서재필박사 유중국총영사「프노파ㅣ드」불란서총영사「킬모ㅣ드」영국총영사「스티코프」중장「뿌라운」소장급 리승만박사 안민정장관등내빈의기념식사가잇고 시남녀후생합창단의「기념가」합창이잇슨뒤 조병옥(趙炳玉)박사가연합국원수(聯合國元首)「맥아ㅣ더」원수「하ㅣ지」장군에게보내는감사「멧세ㅣ지」랑독을행하고 마지막으로 김구씨선창으로「대한독립만세」를三창후동열두시五십분 뜻깁흔기념식전을폐회하엿다

기념식이끗나자조선경비대군악대를선두로식전에참석한전원은행렬을지어 식장으로부터을지로(乙支路)六가를지로三가 종로三가세종로(世宗路)로장사진의행진을행하고 군정청압광장에이르려 동二시반경해산하엿는데 오후세시 창덕궁비원에서는시청주최로각게명사를초청한기념축하회가성대히열리엿다(사진은기념식장)

八·一五前後의治安確保

趙警務部長談話發表

조(趙)경무부장은 지난十四일 해방二주년기념일전후의치안에대하여 대요다음파가튼담화를발표하였다

두번째의 해방기념일을마지하여 국립경찰의 치안유지에대한 업적을 회고하건데 자타가공인할정도의 공적을나타내엿다 그러나최근까지에도 사천(泗川)옥천(沃川)창원(昌原)가건등이 계속발생되여 직접으로는다수의살상을내고 간접으로는 안으로는건국력을소손케하고 박그로는조선민족의 위신을 추락케함은 치안유지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감을느되는바이다 八·一五를압두고 당국의수집한정보와 증거로서판단할진대 八一五전치안상태에대한 우려가불무하다 일반정치사회단체에서는 이날을정치투쟁의기회와 도구로사용치말기를바란다

機械·染色 乾式洗濯 東一百貨店크리ㅣ닝部

以北學生總聯盟結成

이남의학원에서 배움에힘쓰는이북학도들은역사적인八·一五제二주년기념일을마지하야 이북학도의총단결을도모하고저 한국학생연맹 서북학연 함남학연등 三학생단체는 이북학생통일을전제로 발전적해체를선언하고 지난十三일하오四시 시내영낙교회에서 이북학생총연맹(以北學生總聯盟)을결성하엿는데부서는다음파갓다

▲顧問‖李承晩博士、金九氏、曺晩植氏▲指導委員‖李允榮、金東鳴、朱基永▲委員長‖安桂勳梯▲副委員長‖金慶得外二名(以下略)

미시스 씨울 코리ㅣ어 ②

洋風進駐

서울거리의 소개지에 버러진「피엑스」(P·X)는 수효가상당하만치만그 필두로는회현동(會賢洞)의「픽·엑스」를첫손꼽을수박게업다 다음엔동대문시장명동가두(明洞街頭)등 々때와물품에따라「피·엑스」의 수효와 장소는 변동한다「엠피와경관」에는초리로「피·엑스」변동의「바로메ㅣ터ㅣ」의하나다

회현동용산세무서(龍山稅務署)압 소게지가현재와가치전성(全盛)시거를 마지한것을 짜저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웃에 남대문시장이잇고 진고개 명동등 서울의번화가(繁華街)를 업드러지면 코가다을만한곳에둔 입지조건(立地條件)이「피·엑스」로서 절호의 장소가되게햇다 모이는고객파상인들도 서울의중심지이만큼 조선八도남녀노소의 전형(典型)을 총망라하엿다 박래품이 가지각색이것파가치 그들의상법 배심외누구도 가지각색이다

말하는 말소리에잇서서는 일층 그ㅣ바라이에틔ㅣ가 풍부하다 「평안도」「당사치」와경상도ㅣ가시내ㅣ가 사고팔고 경기도 늙은이와 함경도「양깡이」(女人)가 서로 사투리로 외누리를한다 매일 열시만지나면 이들장사치와 구경군이 서로억개와 몸을 비비가면서하로의 버리에 열중한다 석유궤작우에 통조림「베ㅣ콘」고기 덩어리알룩달룩한「켄듸ㅣ」가 만화경(萬花鏡)가치진열되여 식욕을씩고 평안도 로파가 봇짜리속에 싸둔 양복 // 샷쓰 //

取締도맥못쓰는

生活의競演場피엑스

를 지나가는사람에게끼여 넌즛이 보히여그들의사치심을 건드려놋는다그러나 해방된조선에불안이 ㅣ무업듯이「피엑스」의 세로는 평온한때가 드물다 // 뗏다 // 하는 군호한마듸가 한편국석에서 들리면 초단파(超短波) 무전보담도 빨리 이구석저구석에서전격적철퇴공작이 벌어진다 양복파샤쓰를책보에싸들고 넌즛이 손님에게보히는 六십넘은로파의배(腹)가 순식간에 만삭된것처럼 부푸러오른다 통조림 너흔 // 륙삭크 // 를 헌도풀지안코 내려노코 손님을기다리든 통조림장사는 불이나게 // 류크삭크 // 를질머지고 남산관사(官舍)모퉁이로 줄다름친다 갓난애를 업은 젊은녀인네의 배와허리가 삽시간에 체중三십관이상의 뚱뚱보가된다「엠피」와 경관은 때로는자동차와「추럭」을몰아이곳을 습격한다「추럭」은 그들에걸린 불행한 이들좀 // 모리배 // 의석유궤작파 담배갑을 빼앗고 그들을 못들어 추럭에실고 도라가는것이다

그러나「추럭」이 경찰문으로들어갈때엔 못잡힌사람의 수효는 五분의一만남어잇고 모다들 어느새에뛰어나려버린것을발견한다 게가남은三분의一이가지고온석유궤작파담배갑은 비여잇다 그것파는 아조판이한「추럭」이 인구조밀한 회현동골목길을 서々히 내려오는사이에 민첩하게뒤로 는동무들에게 담배와통조림을 질々흘러버린때문이다 이와갓치서풍몰아도십분못가서「피엑스」는 다시영업을게속한다 서풍이불면불사록 그들의 장사방법은교모하다 석유궤작대신에「륙크삭크」를 펴놋는일이만어진것도 三십六개째문아다양복 // 샤쓰 // 장사가견본만넌즛이보히고새품은배와등에숨겨두는것도 이지음 // 박아지 // 손님 // 이 만어진째문이라고하다 // 박아지 // 는 철갑모자를 의미하는말이다 박아지가 차저오는일이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경제법측에따라 갑이오른다 갑이오르면오를사록 정자옥진열상에새로운물건이 자태를나타내이듯 이곳에새로운메드인유에스에이「USA」가넘치게되는것이다

三和藥業社
서울市貫鐵洞九八番地
(永保빌딩別館)電光1801

金剛電球株式會社

新榮商事
서울市中區忠武路一街四八
電話本局②2728·167

運輸、倉庫業 株式會社 朝日組
社長 金炳哲
支配人 李弼榮
서울市西大門區萬里洞一街四一
電話本局 二五○·二五六一九·三七九五
支店―仁川、釜山、永登浦

서울水產市場株式會社
電話本局一四七八番
社長 趙豐鎬
專務 李敏佑
支配人 梁在元

圖書出版 廣文社
서울市中區乙支路四街一五九
電話本局②五六四三番
振替京城一九六九六番

東亞商事株式會社
서울市中區小公洞一一六

朝鮮運輸株式會社
서울市中區東子洞十二
事務取締役 李載淳

紙物都賣 慶和貿易商會
李裕生
서울市茶洞七六
電話本局三七三六番

海南
海南郡生活必需品商業組合
理事 閔丙河

海南邑本町(電三○番)
誠信醫院
醫師 朴桂洙

海南面大町一九
司法書士 金郁台事務所

海南邑內本町 電話三六番
精米製材業 金豪俊工場

內科X光線科 海南醫院
公醫 千炯福 電二三番

海南郡學校費擔任者
海南郡守 金景培

海南郡農會
會長 金景培

海南郡廳
郡守 金景培 外職員一同

全羅南道食糧管理司海南出張所
所長 梁玄植 外職員一同 電話二八番

海南邑
三星精米所
張采律、張采文、張采福

海南面事務所
面長 朴斗煥 外職員一同

高級社交場
白花會館
主韓成律

全南海南邑大正町七○
時計印章 會光堂時計店
梁會乙

海南郡北平面

海南郡縣山面事務所
縣山面長 尹雄 外職員一同

北平漁業組合
役職員一同

海南郡北平面南倉里一○
民衆醫院
醫師 金鐘漢

全南海南郡北平面南倉里
三星醫院
醫師 金秉聲

海南金融組合北原支所
職員一同